

# “광주천을 도심 생명줄로 바꾸겠다”

### 자연형 하천 복원...‘세느강화’ 사업 대통령에 건의 광주 여당 후보들 ‘영산강 프로젝트’ 공동 공약

한나라당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이 광주천을 도심의 생명줄로 바꾸고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후보들은 또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어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욱(동구)·정용화(광주 서구갑)·노영복(남구)·강경수(광산구을) 등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수원지 인근에 전용댐을 건설, 광주천에 일정량의 물을 항상 흐

르게 한 뒤 유람선이 다니게 하는 ‘광주천의 세느강’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등은 “전용댐 건설과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배수갑문 설치 등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과 연계해 국비로 추진되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영산강은 준설만으로 뱃길

복원이 가능한 만큼 환경 파괴 우려가 없다”면서 “영산강 운하 터미널을 서구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유치하고 고급호텔과 참고 물류업, 금융보험업 등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도록 해 서구를 호남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산강 수질 개선 및 뱃길복원 사업을 체계적인 유역관리와 오염원 방지를 통해 환경을 살리면서 사업비가 5조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통합민주당과 단체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실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저상버스 운행 확대해 주세요”

### 광주시민들 선관위 홈페이지에 ‘희망 공약’ 올려

‘광주에서 운행중인 저상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선 공약은행’코너를 마련, 유권자들에게 총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공약을 올리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후보들에게 전달, 공약을 통해 반영토록하겠다는 의도다.

시 선관위는 또 6명의 대학생들로 이뤄

진 시민기자단을 운영, 각 자치구에서 취재한 다양한 현안을 올리도록 했다.

한 유권자는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를 자처하지만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광주의 전통적인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화중심도시 차별화를 제안했다.

또 다른 시민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구간과 복구를 잇는 2·3호선을 조기 개통하는 것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올린 지역 현안이나 불편한 사항 등을 민생·복지·환경·교육 등의 분야에 따라 정리한 뒤 ‘18대 총선 시민희망공약집’에 담아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측은 “시민공약집을 통해 이번 선거가 시민들이 바라는 점을 공약에 반영해 반드시 실현하는 ‘매니페스토(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공약) 선거’가 되도록 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적격 vs 부적격’ 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회의 일정 못잡아 23일 이후 자동임명 가능성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이 무산됐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당측에 최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회의가 유회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 내정자에 대한 교체를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이라며 “최 내정자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일이라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제 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전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하나둘씩 퇴장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은 자동으로 무산됐고, 다음 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내정자는 23일 이후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특위는 9명이 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 국회추천 몫 6명 가운데 3명의 추천을 의결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여야간 배분 비율에 대한 미합의로 주전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 4·9 총선 현장

는 데 힘을 쏟겠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토목공사식 개발 논리에 맞서 강력한 야당을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호소.

### 김동철 “한나라당 견제, 더 큰 정치 펼칠 것”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18일 통합민주당의 공천 확정과 관련, “더 큰 정치를 하라는 지역민들의 뜻을 섬겨 민주당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견제 세력으로 키우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

김 의원은 “공천 경쟁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 뭉까지 모아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

### 서갑원 “강한 야당 건설에 온 힘을 쏟을 터”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18일 통합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된 뒤 “강한 야당을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

서 의원은 이날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17대 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 발전을 비롯, 호남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

### 지병문 “지역민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발굴”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18일 통합민주당의 공천 확정 이후 “한 단계 높은 품격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

지 의원은 이날 “신명나는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

### 강기정 “공천 경쟁 후보 뭉까지 뭉겠다”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민들을 떠받드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천 경쟁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이 내놓았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적극 수렴, 광주 발전 및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언급.

### 김영록 “지역민 납득할 수 있게 재공천해야”



○김영록 통합민주당 해남·완도·진도군 예비후보는 18일 “통합민주당은 후보자 재심을 통해 공천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

김 후보는 이날 “공심위의 여론조사 방식은 인지도 높은 후보, 조직 동원력이 앞서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의미”라며 “개혁 공천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만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공천해야 한다”고 주장.

### 김재군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구축”



○김재군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8일 지역원로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이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를 구축하

### 박주선, 남광주 시장 돌며 의견 수렴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8일 남광주 재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돌입.

박 후보는 이날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통합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만큼 지역민을 섬기고 소외된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지지를 당부.

### 강운태 “새 정부, 광주문화수도 의지 있다”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강 후보는 이날 “광역단체별로 문화창작발전소와 지역문화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는 실효성이 없는 뜬구름 정책”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상징성을 퇴색시키고 국가 차원의 문화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성토.

### 송병태 ‘광주 광산 갑 선거사무소’ 개소



○송병태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무소속)는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유권자 혁명 원년 선포식을 갖고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하는 유권자 혁명을 이뤄내자”며 선거운동을 본격화.

송 후보는 이날 “통합민주당의 밀실·계파 공천에 분노해 탈당했다”면서 “민선 2·3기 구청장을 성공적으로 역임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 지역이 제 2의 도약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 김경진 “민주당 공천, 국민 심판 받을 것”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무소속)는 18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와 관련, “개혁공천이라면서 태형실(공천받은 사람의 태만이 현역 실세)”이라고 비난.

김 후보는 이날 “지난 4년간 민생을 외면, 정권을 빼앗기는 등 국정 실패의 책임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또다시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

### 장연주 “서민 보듬는 생활 속 정치 펼치겠다”



○장연주 민주노동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8일 미끄럼틀과 장난감, 인형 등을 갖춘 놀이방을 선거사무실에 마련해 눈길.

장 후보는 “자녀를 둔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치열한 선거전 속 자칫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서민들의 작은 고민까지 보듬는 생활 속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

/홍행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angju.com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달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달양한과

문의전화 01-383-8283